

<나의 삶 나의 하나님>

### 불이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에 피워둔 연탄 난로에서 불이 나서 삭풍이 불어닥치는 12월 한밤중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난데없는 불길에 휩쓸리게 되자 거기서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토끼 200마리가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다가 전부 내의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던 생도들 몇십 명도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피용 앙고라토끼의 털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완전히 새빨간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막 날뛰니까 이걸 생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지라 전부 멀찌감치 앉아서 닭들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불에 타 죽어 재가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는데도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닭이나 토끼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탄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길이 다 사그라진 후에 김 장로님은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자기 손으로 1천명 이상 되는 강패를 길러내고 경찰관까지도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대전에서 왔다는 강패 두목이 그 불타는 양계장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교육생 중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임영철이 라는 청년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농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2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6월 17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대저 여호와와 그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6>**

최근의 컴퓨터 이용추세를 보면 가히 지식의 시대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오늘의 지식도 내일이면 낡은 것이 되곤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열망으로 그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바벨탑처럼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같은 분야에 생명과 사랑을 불어넣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황실에 있는 커다란 작전지도를 본 사단장이 작전지도가 훌륭하게 제작되었다고 칭찬을 한 후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다른 부대의 상황실에다 설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도를 만드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는데, 그 사단장이 다른 부대에 가서 보고를 받는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작전지도를 만든 장본인은 이미 그 부대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마침 유명한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지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병사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병사는 지도를 30등분으로 나누어 한 칸씩 정밀 측정 한 후에 다른 설계 판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지도를 30등분한 한 칸의 모든 구조물표시를 좌표화 시켜서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 작업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때쯤 그 부대에서 제대를 기다리던 어떤 병장 한사람이 어슬렁거리며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농사일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장이 갑자기 그 상황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건축설계를 전공했던 병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니 모하노?" "....." "애고 이런 놈이 무슨 집을 짓는다고 쫓쫓.... 퍼뜩 가서 전지 한 장 가져 오나"

사람들이 커다란 전지(커다란 종이)한 장을 가지고 오자 이 병장은 작전 지도 위에 탁 포개 놓고 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비춰지는 지도의 선을 연필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도 안되어서 완전 똑같은 작전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모두들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없는 지식은 우매한 자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6(시편 63)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11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합심기도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 15:11-24	인 도 자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둘째아들	김성국 목사
성 찬 식 Holy Communion		
찬 송 Hymn	440장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3/ 6	김교섭	정희자	이경석.한은영	이선우.조순정	박일영.임혜자
10	김시욱	임혜자	이선우.조순정	김영태.김시욱	최윤호.송정섭
17	김영길	이영권	이영권.김영태	최윤호.송정섭	최재학.김종건
24	김영태	이경석	최윤호.송정섭	최재학.노은숙	박영태.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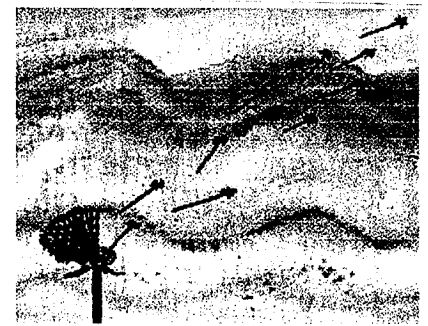
주일예배 12:00	수요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학생.청년부: 토요 4:00
------------	--------------	-------------	-----------------

### 교회력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시시오.  
 예레미야(3)-에스겔:1명. 아모스(11)- 하박국: 1명
  2. 오늘은 Hall을 사용할 수 없어 예배 후 Tea Time을 갖지 않습니다.
  3. 추운 겨울입니다. 방석을 1개씩 지참하시면 따뜻한 시간이 될것입니다.
  4. 모임: 수요예배 후 학생부(중고등부)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5. 교우소식  
 \*변지웅 집사. 한국 방문위해 지난 월요일(11일)출국
  6. 예고: 다음주일은 사랑의 실천'이삭줍기'를 드는 주일입니다.
- ◆6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3일	성찬식	제직회(6일)
10일		식사교제
24일	이삭줍기 봉헌	

\*\*\*\*\*



씨앗은 다시 태어난다는 약속을  
 싣고 날아갑니다. 그 약속의 실  
 현을 위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  
 는 바람으로 후원해 주십니다.